

News

갈수록 커지는 변동금리 폭탄...비중 78.4%, 8년4개월만에 최대

연합뉴스

7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 총 78.4%로 2014년 3월 이후 역대 최대...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아 기준금리 인상시 가계 이자 부담 증가 확대
여전히 고정금리가 0.4%p 높아 금리차이로 인한 대출자들의 변동금리 선호 경향은 강해져... 안심전환대출 차질없이 진행되면 72.7%로까지 비중 떨어질 것 기대

가계대출은 한 달만에 증가세... 기업대출은 '급증'

서울경제

금융위원회, 8월 중 가계대출이 7월비 7,000억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비 3,000억원 증가... 주담대 증가액은 1조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감소
기업대출은 전월비 1조 3,000억원 감소... 신용대출이 9,000억원 감소한 점이 영향... 주택 거래매매는 부진하나 집단 대출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 지속,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

새출발기금 내달 초 가동... 부실 수준별로 4단계 지원

헤럴드경제

새출발기금, 10월 초부터 가동... 1) 코로나 19 피해,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3) 채무연체 등 부실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지원은 크게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으로 구성...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고의연체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감면 위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하지 않아...

포용금융 확대하는 인터넷은행들

아시아경제

토스뱅크, 하반기 중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 출시 예정... 연 15.9%의 고정금리 대출해주는 상품인 햇살론15보다 낮은 금리 제공하는 변동금리 상품
올해 들어 기업대출에 진출한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하반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출시도 앞두고...

저출산·고령화 탓에 “한국은 한계”... 신흥 시장에 공들이는 보험사들

조선비즈

보험사들, 해외 신흥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속화... 삼성화재, 오는 2027년까지 일반보험 매출에서 해외 시장 비중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이중 가장 공들이는 곳은 중국... 단독법인 체제로는 규제가 많아 합작법인으로 전환... 생보사들,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 젊은 층 인구가 많아 새로운 노다지로 꼽혀...

역마진 우려에도 보험사 고금리 확정형 상품 봇물

연합인포맥스

푸본현대생명, 최근 4% 확정 금리 제공하는 저축 보험을 5천억 원 한도로 선보여... 업계에서 4%대 저축보험 나온 것은 처음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의 3% 상품 출시, 8월 삼성생명 3.5% 및 KB생명 3.7% 상품 출시하며 경쟁 과열화... 내달이후 동양생명 등도 고금리 확정형 저축보험 출시할 것으로 예상

“역시 불안할 땐”...증권가 현금성자산 적립 열풍

아시아투데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29개 증권사 전체 현금성 자산 총 22조 3,110억원...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 규모... 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3조 3,858억원으로 가장 많아...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1조 8,211억원으로 소폭 감소... NH투자증권도 1조 1,8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 실적 악화 대비 및 유동성 확보 차원

충성고객 모셔라...증권가 부동산투자 자문 쟁걸음

이데일리

NH투자증권, 이달 중순부터 VIP고객 대상 부동산 클래스 운영...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시장 방향성 두고 고객자산가들의 문의 잇달았기 때문
양질의 부동산 정보 제공해 충성도 높은 투자자를 장기적으로 묶기 위한 포석... 한국투자증권, 6월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시작, 미래에셋증권도 컨설팅 제공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할 수 없습니다.